

보도 일시	2022. 8. 8.(월) 09:00	배포 일시	2022. 8. 8.(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 한중 수교 30주년, 음악으로 깊어지는 우정

-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개최, 8월 8일부터 무료 입장권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8월 24일(수)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중 우호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첼로 연주자 지안 왕,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 협연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Jian Wang),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Ning Feng)이 함께하며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은 1부에서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14번'을, 첼로 연주자 지안 왕은 2부에서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번'을 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 작품번호 92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리고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으로 무대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1인 2매 무료 입장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공연은 만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전석 무료(1인 2매 한정)로 8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롯데콘서트홀 누리집(www.lotteconcerthall.com/kor)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연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간 문화교류로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양국 음악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과 화합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포스터

2. 공연 개요 및 출연진 소개

따로 붙임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공동>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상호문화교류팀	책임자	부장 김도연 (02-3153-1758)
		담당자	팀장 여현경 (02-3153-1783)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지휘 정치용 협연 지안 왕(첼리스트), 닝 평(바이올리니스트) 연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Commemorative Concert for the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Year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2022.08.24.(수) 20:00**  
**롯데콘서트홀**



□ **공연개요**

- 공연명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 공연일시 : 2022. 8. 24.(수), 20:00 ~ 22:00
- 장소 : 롯데콘서트홀
- 출연진
  - 지휘자 : 정치용
  - 협연자 : 1부 바이올리니스트 닝 평, 2부 첼리스트 지안 왕
  - 오케스트라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분	프로그램
오프닝	20:00~20:10	'10	안토닌 드보르자크- 카니발 서곡 Op.92 Antonin Dvorak- Carnival Overture, Op.92
1부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닝 평)	20:10~20:35	'25	사무엘 바버 - 바이올린 협주곡 Op.14 Samuel Barber - Violin Concerto Op.14
인터미션	20:35-20:55	'20	휴식
2부 협연 (첼리스트 지안 왕)	20:55-21:15	'20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Pyotr Ilyich Tchaikovsky -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33
피날레	21:15-21:37	'22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1919년 버전) Igor Stravinsky- The Firebird Suite (1919 Version)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예 매 처 : <https://www.lotteconcerthall.com/kor>
- 예매기간 : 8. 8.(월), 14:00 ~ 8. 22.(월), 18:00

## □ 출연진 소개

출연진	내용
	<p><b>정치용 지휘자</b></p> <p>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은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잘 알려져 있다.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고 서울 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에서 지휘를 전공하며 거장 미하엘 길렌을 사사했다.</p> <p>오스트리아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세계 악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잘츠부르크 국제여름음악제 부지휘자를 거쳐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뮌헨 심포니, 미시간 스테이트 심포니 등을 객원지휘 하였고, 귀국 후 창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 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등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등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p>
	<p><b>1부 바이올리니스트 닝 펑 Ning Feng</b></p> <p>닝 펑은 뛰어난 서정성, 타고난 음악성, 놀라운 기교를 지닌 예술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주요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가장 중요한 국제 시리즈와 페스티벌의 리사이틀과 실내악 콘서트에서도 연주했다.</p> <p>중국 청두에서 태어난 닝 펑은 쓰촨 음악원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안티에 바이트하스 사사)를 거쳐 영국왕립음악원에서는 후 쿤과 함께 학업을 이어갔으며, 졸업 독주회에서 학교 역사상 최초의 만점을 받은 학생이었다.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예후디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수상을 했으며 2005년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2006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현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맨체스터 북부왕립음악원의 바이올린 국제 석좌교수도 맡고 있다.</p>
	<p><b>2부 첼리스트 지안 왕 Jian Wang</b></p> <p>상하이 음악학원 재학 시절 지안 왕은 유명한 다큐멘터리 필름 "모택동에서 모차르트까지: 중국의 아이작 스탠"에 출연했다. 이후 그는 예일대 음대에서 유명한 첼리스트 알도 파리솅을 사사했다.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와의 콘서트를 통해 일찍이 각광을 받으며 국제적 커리어를 쌓았으며, 런던 심포니, 클리블랜드, 취리히 톤할레, NDR 엘프필하모닉, 스톡홀름 필하모닉, 산타 세실리아, 파리 오케스트라, NHK 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해왔다.</p> <p>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가로서 스위스 베르비에, 일본 미야자키, 영국 BBC 프롬스, 미국 탕글우드, 모스틀리 모차르트와 같은 많은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해왔다.</p>

출연진	내용
	<p><b>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b></p> <p>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발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며 관현악·발레·오페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p> <p>폭넓은 레퍼토리로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한 가운데 신한류 흐름 속 국립예술단체로서 차세대 음악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2022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재탄생,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p>